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고용 서프라이즈에 미국증시 쇼크

- 미국 증시 기술주 중심 급락: 나스닥 -4.18%, 나스닥100 -4.77%
- 5월 고용보고서 기대 이상 호조에 금리·달러 ↑
- 반도체주 매도 공세: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 -10.26%

Summary

미국증시 일제히 하락: S&P500 10주만에 약세 전환

6월 5일(현지 시각) 미국 증시 주요 지수는 일제히 급락 마감. 이날 공개된 5월 고용보고서가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호조를 보이자 금리 인상 전망에 대한 베팅이 늘어나 국채 금리가 크게 상승하고 달러도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증시는 하락 변동성을 확대하며 큰 폭 약세 마감.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가 1.35% 하락한 50,866.78에 거래를 마쳤고 S&P500 지수도 2.64% 하락한 7,383.74에 마감.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한 기술주 매도가 전일에 이어 보다 강화된 가운데 나스닥 지수가 4.18% 하락한 25,709.43에 거래를 마쳤고 나스닥100도 4.77%까지 낙폭을 키워 마감. 나스닥 지수 낙폭은 지난 2025년 4월 이후 최대. 금리 상승에 부담을 느낀 중소형주 투자 심리 위축이 반영돼 중소형주 지수 러셀2000 역시 3.47% 하락 마감함.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에서 변동성지수 VIX는 39.68% 급등한 21.51에 마감해 지난 4월 초 이후 최고를 기록.

이날 하락으로 주요 지수는 주간 기준 모두 하락으로 돌아섰으며 다우지수가 한 주간 0.32% 하락해 3주만에 약세 전환했으나 낙폭으로는 상대적 선방. 나스닥 지수도 3주만에 약세 전환했으며 지난 한 주간 4.68% 하락함. S&P500 지수는 무려 10주만에 주간 수익률이 하락으로 돌아섰으며 주간 2.59% 하락했음.

(다우 -1.35%, 나스닥 -4.18%, S&P500 -2.64%, 러셀2000 -3.47%)

5월 비농업 고용 견조: 예상치 두 배 이상 증가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5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전달에 비해 17만 2천명 증가함. 이는 시장 예상치 8만 5천명의 두 배를 넘어서는 '서프라이즈'. 물론 앞서 발표된 4월 수치가 대폭 상향 조정된 영향으로 5월 수치는 4월과 비교하면 소폭 둔화한 결과이나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다는데 시장은 크게 반응함. 4월 비농업 고용은 기존 11만 5천명 증가에서 17만 9천명 증가로 6만 4천명 상향 조정됨.

업종별로는 레저 및 접객, 지방 정부, 보건 의료 부문의 고용이 전체 고용 증가를 견인. 고용이 가장 크게 증가한 레저 및 접객에서는 6월부터 시작되는 북중미 월드컵의 영향을 반영한 식음료 업장에서의 고용 증가 폭이 컸음. 반면 금융 활동 부문에서는 한 달간 2만 2천명의 고용이 감소함. 정보 부문에서도 2천명이 감소. 임금은 상승세를 이었으며 실업률은

4.3%를 기록해 전달과 동일.

고용이 기대 이상으로 강력하다는 소식은 오는 16~1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감으로 이어짐. 케빈 워시 연준 신임 의장이 취임 이후 처음 주재하는 이번 FOMC에서는 기준금리 동결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으며 나아가 당분간 동결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시장은 금리 인상을 우려하는 시각을 가격에 반영. 이날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 미국의 30년물 국채 금리는 5%를 돌파하기도 했음.

트럼프 “더 낮은 금리 보고싶다”

때문에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 대한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아짐. 고용보고서 발표 전인 전일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든 그에 맞춰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으며 제프리 슈미드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 역시 “인내심을 가지고 금리를 유지하거나 인플레이 억제를 위해 금리를 인상하는 것, 둘 중의 선택”이라며 양방향으로의 선택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시사함. 이날 고용보고서 공개 직후 베스 해맥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현재로서는 경제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고려해 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최근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곧 행동에 나서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고 말해 연준의 정책 금리 인상 필요성이 대두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훌륭한 고용 보고서는 주식 하락이 아닌 상승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성장이 곧 인플레이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 이후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고용 지표를 감안해도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금리가 내려갈 때 마다 이자 비용이 줄어든다는 점을 언급하며 “나는 더 낮은 금리를 보고싶다”고 말함.

중동 긴장 완화 기대..그러나

미국과 이란 사이 종전 협상이 빠르게 타결되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추가로 악화되지는 않고 있다는 점에 금요일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등 해당 이슈는 이날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 지난 3일 이란이 쿠웨이트 국제공항 여객터미널을 드론으로 공격해 1명이 사망하고 수 십 명이 다치는 사태가 발생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 사망자가 나오지 않는 한 이란과의 전쟁을 다시 본격화할 의향이 없다’는 의사를 참모들에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도 미국 중부사령부가 엑스(X) 게시물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향해 발사된 이란의 자폭형 드론 4기를 격추했다”고 밝히는 등 양측의 제한적 군사행동은 이어지고 있지만 상황이 급진적으로 악화하는 형태는 아님. 미국 행정부는 현재 양국이 휴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 중.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위스콘신주에서 현지 농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이란에서 매우 신속하게 빠져나올 시점에 도달해 있다”고 말하는 등 대치 국면을 곧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음.

다만 현지시각 6월 7일 이스라엘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공습했고, 이란 측은 중동 내 미국 기지가 합법적 공격 목표가 됐다며 보복을 시사. 이어 이스라엘군은 자국 북부 지역에 대한 이란으로부터의 미사일 공습이 확인됐다며 방공망을 가동한다고 밝히는 등 사태가 악화하는 양상.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이란으로서는 미사일을 쏘으니 이제 충분하다”며 “이젠 협상 테이블로 와야 한다”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혔고 이는 이번 일을 확전의 계기로 삼지 않겠다는 의사로 읽힘. 다만 추후 추가적 군사 행동 여부와 그에 따른 여파는 악화된 투자심리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해당 사안에 대한 경계감은 유지할 필요.

특징종목

거세진 AI 반도체주 매도

브로드컴(-7.92%) 실적 발표를 빌미로 시작된 AI 반도체주에 대한 매도 공세는 이틀째 이어짐. 실적 발표에서 수익성 둔화 전망과 함께 높아진 눈높이를 더 크게 뛰어넘을만한 매출 전망 상향을 제시하지 못한 브로드컴(-7.92%)이 이틀째 급락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13.25%) 역시 D램과 낸드플래시 가격이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정점을 찍을 수 있다는 ‘메모리 호황 정점’에 대한 경계심이 최근 이어진 주가 급등과 맞물려 다시 부각, 낙폭 확대의 빌미로 작용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는 지난 1년 사이 900% 이상 급등했던 바 있음. AMD(-10.86%), 인텔(-11.28%), 엔비디아(-6.20%), 퀄컴(-10.98%), 램 리서치(-9.85%),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9.71%), 애널로그 디바이시스(-6.38%), KLA(-9.47%), 샌디스크(-11.39%), 에이알엠 홀딩스(-12.84%), 시게이트(-8.48%), 웨스턴 디지털(-11.08%),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11.21%), 코닝(-10.18%), 네비우스(-12.27%), 루멘텀 홀딩스(-8.62%), 코히어런트(-10.64%), 시에나(-8.85%) 등 GPU, CPU, 스토리지, 반도체 장비, 소재, 서버, 광통신 관련주까지 AI 반도체를 둘러싼 밸류체인 내 주요 종목군 전반이 10% 내외 낙폭을 보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0.26% 하락했고 VANECK SEMICONDUCTOR ETF(SMH)(-9.22%), ROUNDHILL MEMORY ETF(DRAM)(-15.08%), ISHARES SEMICONDUCTOR ETF(SOXX)(-10.44%) 등 주요 반도체 ETF도 급락.

금리 급등에 테마주도 휘청: 양자, 비트코인 등

금리 급등은 지금 당장의 실적보다 미래 성장성에 무게를 둔 테마 종목들에 대한 거친 차익 실현으로 이어짐.

대표적인 미래 성장 테마인 양자 컴퓨팅 관련주의 낙폭이 특히 컸는데 아이온큐(-13.52%), 리게티 컴퓨팅(-14.40%), 디 웨이브 퀀텀(-13.71%), 퀀텀 컴퓨팅(-11.04%), 아킷 퀀텀(-14.63%), 인플렉션(-14.10%) 등 관련주 모두 10% 이상 급락. 전일 나스닥에 신규 상장한 퀀티뉴엄(-6.82%)도 공모가 60달러 아래에서 거래를 마침.

가상화폐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은 최근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날 금리 급등으로 낙

폭을 확대하며 장 중 6만달러 아래로 떨어지기도.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2024년 11월 이후 최저치이며 지난해 10월 6일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 12만 6,210달러에 비하면 8개월만에 50% 이상 하락한 것. 최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마저 보유 비트코인 매각에 나섰으며 가상화폐 ETF에서의 자금 유출도 이어지고 있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가격은 반등의 계기를 찾지 못하는 모습. 이런 가운데 이날 금리와 달러 가치의 급등은 비트코인 추가 하락으로 이어져 증시에서 관련주도 약세. 스트래티지(-6.90%), 코인베이스 글로벌(-7.15%), 로빈훅 마케츠(-6.63%), 마라 홀딩스(-11.24%), PROSHARES BITCOIN ETF(BITO)(-4.97%) 등.

빅테크 약세

빅테크도 구글 알파벳(-0.98%)과 애플(-1.25%) 정도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을 뿐 전 종목이 하락함. 아마존 닷컴(-3.06%)이 물류센터 인력을 대체할 로봇을 공개했지만 3% 이상 하락했고 테슬라(-6.56%)는 JP모간의 담당 애널리스트가 기존 테슬라에 대한 비관적 의견의 라이언 브링크먼에서 라자 굽타로 변경된 후 기존 145달러였던 목표주가를 475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투자 의견 역시 '매도'에서 사실상의 보유 의견으로 상향했지만 이날 주가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함. 메타 플랫폼스(-5.51%)는 이날 올해 AI 관련 자본지출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수백억 달러 규모의 유상증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 이후 낙폭을 확대. 파이낸셜 타임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앞서 구글 알파벳이 유상증자를 당초 계획했던 800억 달러에서 850억 달러로 확대하는 등 시장의 증자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확인했고 이어 메타 역시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 보도에 따르면 메타 플랫폼스는 알파벳이 채택했던 의무전환우선주 방식으로 시장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 에 대한 검토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짐. 메타는 올해 AI 관련 자본지출이 1,450억 달러 에 달하고 내년 지출액은 이보다 더 커질 전망으로 자금 조달 방안에 대한 고민을 지속해 왔던 상황. 최근 스페이스X, 오픈AI 등의 대어급 IPO를 앞둔 가운데 시중 자금이 IPO 시장으로 빨려 들어가기 전 자금을 선점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메타는 대변인을 통해 이번 유상증자 보도는 순전히 추측에 불과하다며 유연한 방식으로 자본을 조달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힘.

헬스케어, 유틸리티, 레스토랑, 필수소비재 강세

방어주 성격의 헬스케어, 유틸리티, 필수소비재, 통신주 등은 시장 하락에도 강세.

일라이릴리(+0.55%), 존슨 앤드 존슨(+2.02%), 애브비(+1.02%), 암젠(+1.15%), 화이자(+1.36%), 유나이티드헬스 그룹(+0.76%), CVS 헬스(+1.17%), 휴마나(+0.08%), 인튜이티브 서지컬(+0.77%), 스트라이커(+1.48%) 등의 제약, 바이오, 의료보험, 의료기기 관련 주 일부가 상승. 특히 의료기기 업종 내에서는 쿠퍼(+8.58%)가 기대보다 좋았던 전분기 실적을 반영해 오름폭을 확대함.

넥스트에라 에너지(+0.19%),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 컴퍼니(+1.06%), 도미니언 에너지(+0.60%), PG&E(+1.72%), DTE에너지(+2.13%), CMS에너지(+2.39%) 등 유틸리티 기업들도 강세.

월마트(+0.97%)와 코카콜라(+3.46%), 몬스터 비버리지(+1.14%), 콜게이트(+4.09%), 프록터 앤 갬블(+4.09%), 필립모리스(+1.89%) 등의 필수 소비재도 강세

맥도날드(+2.61%), 스타벅스(+1.22%), 다든 레스토랑(+2.41%) 등의 레스토랑 운영 기업들도 대체로 상승세를 유지했는데 특히 멕시코 레스토랑 치폴레 멕시코 그릴(+4.12%)은 JP모간이 투자 의견을 기존 '중립'에서 '비중확대'로 상향 조정한 가운데 오름폭이 컸음. JP모간은 치폴레의 1분기 동일점포 매출 성장률을 감안하면 주가의 추가 상승 여력이 하락 위험보다 높다고 평가함. 이외 버라이즌(+1.11%), 티 모바일(+0.61%) 등의 통신주도 강세.

이외 특징주

전일 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한 애슬레저 의류업체 룰루레몬 애슬레티카(-8.56%)는 회사가 연간 이익과 매출 가이드를 하향했으며 전분기 실적 역시 시장 기대를 하회한 가운데 하락. 회사는 소비 둔화와 사업 환경 악화를 부진한 실적의 배경이라고 설명함.

금값이 연초 대비 상승분 대부분을 반납한 가운데 관련 개별 주식과 ETF도 약세. 뉴몬트(-7.96%), SPDR GOLD SHARES TRUST ETF(GLD)(-3.65%), VANECK GOLD MINERS ETF(GDX)(-8.75%), ISHARES MSCI GLOBAL GOLD MINERS ETF(RING)(-8.49%).

채권,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10분, KST 기준

미 국채금리 일제히 상승: 10년물 4.5% 돌파

미 국채 금리는 단기물을 중심으로 일제히 상승(국채 가격 하락). 노동부가 공개한 5월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시장 기대 이상의 비농업 고용 증가세를 보여주자 시장은 금리 인상 베팅에 무게를 실었고 이에 국채 금리가 전 구간에서 상승.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가 11.30bp 상승한 4.162%를 기록했고, 10년물 금리는 6.10bp 상승한 4.537%를 기록, 4.5%를 재차 돌파. 만기가 가장 긴 30년물 금리는 2.20bp 상승한 4.999%를 기록함. 30년물 금리는 고용 보고서 발표 직후 5%대를 넘어 5.044%까지 오르기도 했음.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FFR) 선물시장은 연준이 오는 12월까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전장 대비 20%p 가량 낮춘 27% 선에서 가격에 반영함. 연내 금리를 한 번 인상할 가능성은 42%대로 높아졌으며 두 번 인상할 가능성도 28%대로 높아짐.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은 1%대에 그침.

달러 강세: 달러인덱스 2개월만에 100 돌파

미국 달러화 가치 역시 국채 금리와 함께 급등. 예상을 크게 웃돈 고용지표에 긴축적 통화 정책에 대한 전망이 힘을 받으며 국채 금리가 급등하자 달러 역시 강한 강세 압력을 받음.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DXY)는 100.069으로 전일 대비

0.66% 급등해 지난 4월 초순 이후 최고를 기록함.

달러-엔 환율은 엔화 약세가 지속되며 장 중 160.345엔대까지 상승하기도 했지만 약세 폭은 장 후반 일부 반납. 유로-달러 환율은 1.1525달러로 0.751% 급락해 유로 약세-달러 강세를 반영했고 파운드-달러 환율 역시 0.64% 급락한 1.3338달러를 기록함.

한편 달러-원 환율은 달러 강세 요인과 원화 약세 요인을 함께 반영하며 급등. 야간 거래에서 장 중 1,560원을 넘어서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이후 17년 3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야간 거래 마감을 앞두고 상승 폭을 키워 1,561.5원까지 올라 장 중 고가 기준 2009년 3월 6일 기록했던 1,597.0원 이후 최고를 기록하기도 함. 이날 야간거래에서 달러-원 환율은 주간 거래 종가 1,537.1원 대비 19.9원 급등한 1,559원에 마감. 뉴욕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달러-원 1개월물은 최근 1개월물 스와프포인트(-1.00원)를 감안하면 전장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증가 대비 21.1원 급등한 1,559.20원에 마감함.

국제유가 하락: 주간으로는 상승

국제유가는 중동 긴장 사태가 추가 악화되지 않은 가운데 이틀째 하락. 뉴욕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2.69% 하락한 배럴당 90.54에 마감했고 브렌트유 8월물은 2.04% 하락한 배럴당 93.09달러에 거래를 마침. 브렌트유와 WTI는 동반으로 이틀 연속 하락. 다만 주간 단위로는 WTI가 3.64%, 브렌트유가 1.13% 각각 상승.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미국의 중재 속에 휴전 이행에 합의했지만 이후 헤즈볼라 쪽에서 이를 부인하는 발언이 나왔고 미국과 이란 사이 국지적 군사 행동도 지속되고 있음. 미국과 이란 사이 종전 협상 역시 이렇다 할 진전 없이 교착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휴전 거부 의사에 대해 “그들이 거부한 것은 아니며 헤즈볼라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는 등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한 의도로 풀이되는 발언을 했고 오만 주요 원유 수출 터미널 인근에서는 드론 공격으로 추정되는 폭발이 발생해 원유 선적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지만 선적이 수 시간 내에 재개돼 역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됐음.

금리가 상승하면서 투자 매력이 감소한 금은 가격 하락 폭을 확대함.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8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3.1% 하락한 트로이온스 당 4,365.30달러에 마감. 7월 인도분 은 선물 가격 역시 6% 이상 하락해 온스당 70달러를 이탈.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